



즉시 배포용: 9/24/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JFK 공항의 유서 깊은 TWA 비행센터를 HOTEL COMPLEX로 전환하는 75년  
임대 협상을 발표하다**

*이러한 전환 사업으로 약 3,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존 F. 케네디 공항에 있는 랜드마크 TWA 비행센터를 호텔 콤플렉스로 전환하는 장기 임대 협상이 정식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공항의 황금 제트 시대를 기리면서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공항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뉴욕시에 걸맞는 관문을 만들고 여행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뉴욕 공항들을 21세기에 걸맞게 현대화하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TWA 비행센터에서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여행객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JFK는 공항 호텔을 갖추지 않은 몇몇 미국 공항 중 한 곳입니다.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억6,500만 달러 규모의 이 건설 프로젝트는 약 2,500개의 통합 건설 및 복구 일자리를 포함해 3,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8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호텔 계획은 지난 7월에 Cuomo 주지사가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항만청의 Board of Commissioners가 승인한 이 프로젝트는 TWA Flight Center와 6에이커의 부지를 JFK의 유일한 공항 호텔로 재단장하기 위해 MCR Development 및 JetBlue Airways Corporation의 파트너십인 Flight Center Hotel LLC와 75년의 임대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MCR Development은 호텔의 지분을 95% 유지하고 JetBlue가 5%를 가질 것입니다.

Flight Center Hotel LLC은 약 2억6,500만 달러를 유서 깊은 TWA Flight Center를 리노베이션하는 데 투자하고, 505개의 호텔 객실과 40,000 평방피트의 만남의 장소, 레스토랑,

스파 및 10,000 평방 피트의 전망대 데크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6층짜리 호텔 타워 2개동과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건물이 자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운동가들은 전설적인 건축가 **Eero Saarinen**이 설계한 새빨간 라운지 구역을 갖춘 곡선 모양의 1960년대 새하얀 중앙홀이 역사적인 지정에 따라 항만청이 실시하는 2,000만 달러 규모의 레노베이션을 통해 5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재현된 것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항 호텔 개발은 케네디 공항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 구성된 주지사의 공항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단의 핵심 권고안을 따릅니다. 개업업체의 재정 투입과 함께 항만청도 호텔 콤플렉스를 위한 주차장과 AirTrain Station인 JetBlue 터미널 연결장치에 최대 8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항만청의 Pat Foye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만청은 TWA 비행센터가 JFK 공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공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호텔은 지나간 찬란했던 20세기 중반의 여객기 여행 시대와 더불어 21세기 우리 공항 이용객의 증가하는 니즈에 부응할 것입니다.”**

**MCR Development의 CEO인 Tyler Mor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Jet Age의 상징인 TWA 비행센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 지역의 항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을 거들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터미널의 항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구된 TWA 비행 센터의 객실 505개 규모의 호텔은 전체 JFK 국제공항의 훌륭한 편의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 Eero Saarinen의 유서 깊은 걸작을 기념 및 보존하면서 3,700개의 건설 및 정규직 일자리와 40,000 평방피트 규모의 절실히 필요했던 현장 만남 공간을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준 Cuomo 주지사, 뉴욕 및 뉴저지 항만청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etBlue의 Corporate Real Estate 부사장인 Rich Smyth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플래그십 T5 터미널의 정문에 자리한 TWA 비행 센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Saarinen의 항공 랜드마크는 두 개의 상징적인 고가 보도로 T5와 연결되어 있어 JetBlue 이용객들의 경험을 곧장 호텔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MCR의 재개발 계획에 소수 투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터미널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면서 이용객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되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MCR의 비전과 파트너십에 감사 드리며, TWA 터미널을 실용적으로 복원하여 재개장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오랜 신념을 지지해주신 Cuomo 주지사와 항만청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Terminal 4 Airlines Consortium의 Francis A. DiMola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erminal 4 Airlines Consortium은 역사적인 비행 센터가 이용객들의 손으로 돌아오고 JFK의 최초의 풀서비스 호텔을 건립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레스토랑, 박물관 부지, 전망대**

데크 등과 함께, 이 전향적인 계획은 JFK를 세계적인 관문으로 발전시켜줄 것입니다."

**Kennedy Airport Airlines Management Council의 Rodger Recker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AAMCO는 역사적인 TWA 비행 센터가 이용객들의 손으로 돌아오고 공항 이용객들을 위해 퍼스트 클래스의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 500개 규모의 호텔을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KAAMCO는 호텔과 관련 컨퍼런스 시설, 소매 및 레스토랑이 앞으로도 계속 NYNJ 항만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JFK를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Aer Lingus의 Jack Foley 북미지역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arinen Building은 JFK와 항공 역사의 건축사적 모범으로 남아 있고 JFK 및 항공의 미래 일부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물 외관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이 구역을 T5과 인접하고 모든 터미널이 Airtrain에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호텔 및 컨퍼런스 시설로 가꾼다면 JFK의 세계적인 위상이 강화되고 현재의 공항 인프라에 빠진 중요한 요소가 추가될 것입니다."

**Emirates Divisional의 Commercial Operations, West 수석 부사장인 Hubert Fra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WA 비행 센터를 세계적인 회의 및 다이닝 공간을 갖춘 풀서비스 호텔로 복원한다면 세계 각국에서 뉴욕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큰 편의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개발이 JFK 공항에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회사의 웹사이트 [Twaflightcenterhotel.com](http://Twaflightcenterhotel.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TWA 비행 센터는 Saarinen의 사후 1년인 1962년 중요한 건축사적 환호를 받고 개장되어 2001년까지 JFK의 TWA 터미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더 이상 오늘날의 승객 규모 또는 현대식 항공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여겼을 때 항만청은 항공 역사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복잡한 리노베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1994년, 뉴욕시는 이 터미널을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지정했고, 2005년에는 NPS(National Park Service)가 TWA 비행 센터를 미국 국가사적지에 등재시켰습니다. 솟구치는 모양의 흰색 랜드마크 건물은 Terminal 5과 인접해 있으며, JetBlue Airways'의 JFK 오퍼레이션의 일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건물은 Open House New York 대민 개장식, JetBlue 컨퍼런스, 비틀즈 마니아와 영국 침공의 시작을 알린 록밴드 비틀즈의 최초 미국 방문과 비틀즈가 JFK에 도착한 1964년을 기념한 Beatles 1964의 제50주년 기념 축하행사와 같은 특별 행사에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